

# 한잔의 차와 함께 하는 독서삼매경

중대형 서점마다 작은 공간의 '북카페' 마련



초록과 파랑으로 시원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는 대전 계룡문고의 '북카페'

최근 중대형서점들이 다양한 형태의 북카페를 마련하고 있다. 한잔의 차를 마시며 독서삼매경에 빠질 수 있는 북카페는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현대인에게 더없이 좋은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 나아가 북카페는 지역문화 활동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발상의 전환이 경영개선을 넘어서 문화의 향기를 넉넉하게 전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 각종 문화모임의 공간으로 활용

97년 10월에 개장한 대전 계룡문고(대표 이동선)의 '북카페'는 꾸밈새부터 문화의 향기를 듬뿍 전한다. 북카페에서 '중이접기' 활동을 하는 회원들이 정성을 쏟아 만든 다양한 형태의 공작물을 소품으로 장식했기 때문. 열린 공간답게 초록과 파란색 위주로 꾸며 시원하면서도 아늑한 느낌이다.

각종 도서가 빼곡하게 진열된 2층 서가에 30평 규모로 마련된 북카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주민 독서모임, 각종 동아리 모임, 동화 읽는 모임, 저자와의 대화방 등으로 활용되고, 서가에 진열된 책을 들고 온 일반 독자도 차를 마시며 읽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동선 대표는 "서점이 종합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고객을 위한 열린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진주인의 문화생활 공간을 지향하며 지난 달 24일 문을 연 진주문고(대표 여태훈)의

10평 규모 북카페 '누뽀' 역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역 교사의 모임, 주부문화 모임, 동화읽기 모임 등을 위해 무료로 개방하고 저자와의 대화방 등으로 활용한다. 경상대 앞에서 인문사회과학서점을 운영한 여태훈 사장은 86년 이후 책을 살 수 있고 대출도 할 수 있는 서점 '책마을'을 경영하며 북카페를 지역문화 활성화의 장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여태훈 대표는 "북카페는 서점의 고유영역을 지키며 지역 문화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10평 규모로 문을 연 광주 사랑방문고(대표 박희중) 북카페는 어느덧 시민을 위한 만남의 장으로 자리매김됐다.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 광주의 명물로 떠올랐다. 맛은편 카페를 바라보며 '찍기미팅'을 하는 장소로 청소년에게도 인기가.

지난 97년 11월에 삼성플라자 내에 문을 연 북앤리더스(지점장 이규욱), 지난해 12월 개장한 서울 목동의 열린문고(대표 김용남), 지난 3월 새롭게 단장한 서울 명륜동의 인문과학서점 논장(공동대표 이재필), 그리고 4월 마련된 중로서적(대표 민병인)의 '전망 좋은 방' 등도 시민의 휴식공간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간이다.

북카페를 거의 처음으로 도입한 북앤리더스의 이규욱 지점장은 "미국의 반즈앤노블의 경영 노하우를 응용하면서 도입하게 됐

다"고 밝혔다. 그는 "서점에 카페가 있다는 것 자체부터 관심을 끌었다. 아직은 우리 환경에 썩 부합되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많은 서점에서 도입

진주문고의 북카페 '누뽀'. 주부문화모임, 동화읽기모임 등으로 활용한다.



할 것"으로 예상했다.

열린 공간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책을 도난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경영

노하우. 계룡문고는 영수증에 책의 제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즉, 읽던 책을 무의식적으로 들고나가려던 고객에게 영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시키는 장치를 마련한 것. 이동선 대표는 "모든 제도에는 문제가 있게 마련이다. 극복방안을 찾

는 일이 서점인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북카페의 반쯤은 계산대를 갖춘 별도 매장으로 운영하고, 반쯤은 자판기를 설치하여 열린 공간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자칫 질서가 무너진다. 특히, 무료이용의 북카페에서 나타나는 무질서는 골칫거리. 서점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약간의 제재를 가하는 방법도 모색중이다.

## 책 도난사고도 골칫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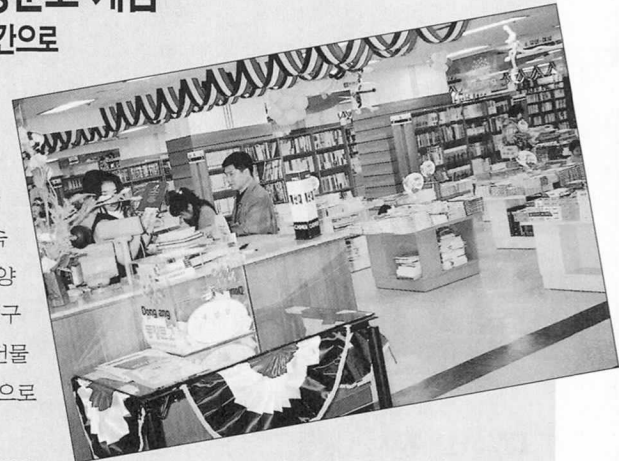
작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카페는 조금씩 서점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북카페가 책판매의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확신하는 이는 많지 않다. 여태훈 대표는 "북카페는 이익을 생각하면 마련할 수 없는 공간"임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선진국의 서점은 윈스톱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내에 북카페를 마련해 책 읽는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국내 서점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고객의 휴식처로 자리하는 북카페의 역할을 점점 강조하고 있다. 북카페가 서점문화의 꽃으로 필 날도 머지 않은 듯하다.

—오완진 기자

## 수원 최대의 동양문고 개점 6백평 규모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수원 신시가지에 1천2백평(실평수 6백평) 규모의 초대형 서점 '동양문고'가 지난 1일 문을 열었다. 설립주체는 30년간 고속버스 및 건설산업을 해온 (주)동양고속·건설(대표 최윤신), 권선구에 자체적으로 건설한 주상복합건물 '동양팩스빌' 지하 1층을 서점으로 꾸몄다.

도서 7만여종 15만권과 각종 문구·팬시물품·음반·CD 등을 함께 판매하는 윈스톱서점의 형태를 갖췄다. 주변에는 시청 등 관공서 및 율리픽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수원 시민은 '문화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하길 기대한다. 또한 대학의 제2캠퍼스가 다수 자리하고 있어 활



발한 장소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최원곤 이사는 "문화시설이 열악한 수원에 서울 대형서점을 능가하는 현대식 서점을 갖췄다는 것이 우선 의미. 있는 일이며, 시민이 부담없이 책을 고를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오완진)